

사사기 22. "도덕적 부패 2. "베냐민 지파의 비극" [20 장 1 절-48 절]

1. 들어가기

본 장은 19 장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타락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에 대해 분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레위인 첩의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자 흥분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면서 결국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총회 앞에 선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고발하면서, 억울하게 당한 일을 갚아 줄 것을 모인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할 것을 총회에 요구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힌 군사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아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어 기브아의 일을 설명한 뒤에 죄인들을 저들에게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말을 무시하고 도리어 기브아에 모여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벳엘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베냐민 자손과 누가 먼저 나아가 싸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 싸우라는 답을 얻게 되고,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는 3 차례 걸쳐 동족간 치열한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베냐민 병사 25000 명이 전사하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일까?

- 학자들 = 이 사건은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
- 28 절을 중요한 근거로 생각..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느니라”(삿 21:28)

■ 참고 1. 아론의 후손

- ① 아론의 아들은 총 4 명 :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 ②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타 죽게 되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아론의 사역을 도움.
- ③ 그런데 본문의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 그는 모세 시대 때부터 살았었고, 여호수아 때에 제사장으로 있었으며,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 살아있었다는 것.

■ 참고 2. 비느하스.

이스라엘이 싯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영병을 내리신 일이 있었는데, 이때 비느하스는 창을 가지고 나아가 그 음행 하던 두령과 여자를 포개어 배를 꿰뚫어 죽였음.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영병을 멈추어 주시고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25 장 11-13 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비느하스 계열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음!
이다말 계열 =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후손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음행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가 끊기면서 이다말 계열은 멸족되었음!

2.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임 (1-3 절)

■ 참고 3. 미스바

- ① 예루살렘 북방 7.5 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현재의 ‘네비삼윌 : Nebi-Samwil’ 지역으로 생각 (수 18:26) (참고: 성경엔 요단 동편에도 미스바란 지역이 있음)
- ② 미스바에서 기브아까지는 대략 4.8km 떨어져 있었음..
- ③ 사무엘 시대에는 국가적 총회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집이 있던 실로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 추측.

■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각 지파의 장로들과 칼로 무장한 보병 40 만명이 미스바로 모임!

- ① 긍정 - 처음부터 기브아의 죄악을 반드시 징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는 것.
- ② 부정 - 베냐민 지파를 자극하며 두려움을 주어 처음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하는 역효과를 주었다고도 볼 수 있음.
- ③ 아쉬움 - 처음부터 이스라엘 총회가 무력으로 저들을 징벌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베냐민을 설득하고, 기브아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 교회든 가정이든 먼저 스스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준 뒤에 징계하는 것이 필요!

마태복음 18 장 15-18 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 총회 앞에 선 레위인의 진술 (4-7 절)

1)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백성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기브아 사람들을 총회에 고발하였습니다.

■ 주목 - 레위인의 진술은 과연 옳은 것인가?

4 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_____! = 왜 자신이 기브아로 갔는지는 _____ !!

5 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옥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② 사건의 내용을 _____하고 긍정적인 사실은 _____!

■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

4. 이스라엘 총회의 결단 (8-11 절)

■ 이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 사항

- 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형벌을 받을 때까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28 절)
- ② 40 만명의 보병 중 따로 정예군 4 만명을 선택해 기브아 사람들과 싸울 것(9-10 절)
- ③ 누구도 딸을 앞으로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 (21 장 1 절)
- ④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 (21 장 5 절)

5. 베냐민 지파의 반응 (12-18 절)

1) 총회는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기브아의 일을 알리고 저들을 내어 놓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은 이를 거절하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① 자체 방어를 위해 2 만 6 천명의 군사를 모집. (15 절)
- ② 또한 기브아 거민 중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 명을 특공대로 선발

3) 베냐민 지파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한 이스라엘 총회와 연합군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18 절)

- ① 총회기간 동안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 놓은 벳엘로 올라감
- ②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아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인지 뜻을 구함.
- ③ 결과 - 유다 지파가 선발대로 나아가 베냐민과 싸울 것을 응답 받음.

6.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3 차 전쟁 (19-35 절)

1) 1 차 전투는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9-23 절)

- ① 수적으로 우세하였던 이스라엘 연합군은 예상과 달리 대패를 당하였음.
- ② 이 전투에서 2 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전사자가 생김.

■ 1 차 전투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벳엘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울었음!

- ① 다시 하나님께 나가 싸워야 하는 지를 물었음! - 전쟁의 진의를 확인하고자 함!!
- ② 그러나 저들이 운 것은 패배를 슬퍼하며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운 것이지 죄를 회개하며 운 것이 아니었음!

2) 2 차 전투 역시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4-28 절)

- ① 1 만 8 천명의 전사자를 내며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시 패배함!

■ 그럼 이렇게 1-2 차 전투에서 대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 두 번째 전투에서도 대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제사를 드림! (26 절)

- 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전보다 훨씬 신중해 졌다는 사실을 발견
- ② 이전에는 먼저 군대를 모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부터 드림!! - 율법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
- ③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친히 그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음!
- ④ 결과 -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음!

3) 3 차 전투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9-35 절)

- ① 기브아 성 돌레에 복병을 배치한 뒤 베냐민 군대를 유인하여 집중 공격하였음.
- ② 결과 베냐민 지파의 2 만 5 천 1 백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둠.
- ③ 승리 요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셨기 때문!

35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4) 36-46 절은 3 차 전쟁의 요약 설명..

7. 3 차 전투에서 목숨을 건지 베냐민 군사 600 명은 광야로 도망가 림몬 바위에 숨어 4 개월을 지냈습니다. (47-48 절)

■ 참고: 림몬 바위

고도 757 m 의 구릉 위에 있는 큰 바위 동굴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숨을 수 있는 마실 샘이 있는 베냐민과 요단 사이의 요새였음.

- 베냐민 군사들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을 쳐서 만나는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버렸음!

➤ **생각하기.**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결심한 것이 있다면?